보도자료 ★ 9월 14일 (월) 09: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경남교육

경상남도교육청 GYEONGSANGNAMDO OFFICE OF EDUCATION		보 도 자 료	
기 관 명	신창여자중학교	학교(기관)장	정순영
배 포 일	2026. 9. 14.	담 당 자	하소안(070-4949-1091)
붙 임	사진(○), 영상(×)		

신창여중 배드민턴부, 제20회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출전

2026. 창녕교육지원청교육장배 우승에 이어 도 단위 대회서 값진 경험

신창여자중학교(교장 정순영)는 지난 9월 5일 김해문화체육관에서 열린 제20회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배드민턴)에 참가해 도 단위 대회에서 다양한 학교의 선수들과 실력을 겨루며 값진 경험을 쌓았다. 이번 대회는 2026. 창녕교육지원청교육장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배드민턴)에서 우승하며 도 단위 대회에 참가할 기회를 얻은 것으로, 학생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과 열정을 펼쳐 보이는 뜻깊은 무대가 되었다.

이번 교육감배 대회는 일반적인 풀리그 방식이 아닌 링크전 방식으로 진행됐다. 링크전은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등 도형의 꼭짓점에 각 팀을 배치하고, 선으로 연결된 팀끼리 경기를 치르는 방식이다. 경기 결과에 따른 승률 등을 바탕으로 순위를 결정해 상위 팀이 다음 단계로 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창여중은 이번 대회에서 두 차례 경기를 치러 1승 1패를 기록했다. 한 경기에서는 2:1로 승리하며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었고, 다른 경기에서도 3:0으로 졌지만 경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 비록 승률에 따라 결정되는 순위에서 아쉽게 8강 진출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도 단위 대회에서 다양한 학교의 선수들과 실력을 겨루며 소중한 경기 경험을 쌓았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은 주로 1학년 학생들로 구성되어 상대적으로 경기 경험과

노련함이 부족하고 신체적인 부분에서도 다소 불리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선수들은 경기마다 서로를 격려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1학년 선수들이 중심이 된 만큼 이번 대회에서 얻은 경험은 앞으로의 성장에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꾸준한 훈련과 다양한 경기 경험이 더해진다면 내년에는 더욱 향상된 경기력과 자신감을 갖춘 선수로 성장해 한층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회는 경기 결과를 넘어 선수들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컸다. 방학 중에도 꾸준히 훈련해 온 선수들이 도 단위 대회라는 큰 무대에서 직접 경기를 경험하면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고, 경기 운영 능력과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다.

신창여자중학교 관계자는 “창녕교육지원청 교육장배에서 우승하며 도 단위 대회에 참가하게 된 것만으로도 학생들에게 큰 자부심과 동기부여가 되었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선수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소중한 경험을 쌓은 만큼,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사진 설명]
① 경기 전 승리를 위한 전략을 논의하고 있는 모습.
② 경기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

보도자료와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아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무행정원 하소안(☎070-4949-1091)